

## 선교 팀사역에서 성경적 감정 관리

- 유은영 선교사 -

현 YWAM 인도네시아 선교사, 2003년 9월 이후 YWAM 말레이시아 페낭베이스에서 sbs(귀납적성경공부학교)간사예정, 동남아권에 sbs 사역 개척예정.

97년 1월 인도네시아 자바지역으로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은 유은영입니다.

91년 경배와 찬양집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타문화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 한국예수전도단, 제자훈련 6개월 과정을 마치고, 같은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기까지 공동생활훈련과 국내행정사역 간사로 섬겼습니다.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섬길 때, 초대교회가 있었던 터어키땅을 약 3주간동안 밟아 보고 중보기도 하면서, 동남아시아권 무슬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모슬렘 통계를 읽고, 인구의 90%가 무슬림 지역인 인도네시아지역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 동역자님께 선교지 즉, 팀사역 안에서 개인적으로 감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의 수고로, 많은 열매를 맺고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선교지의 실정을 나눈다면, 같은 한 팀으로써, 서로 다른 기질과 일 하는 스타일로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운 상황은 재정, 언어, 음식, 날씨, 현지인과의 어려운 관계도 아니고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조건만도 아닙니다.

바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서로간의 경쟁, 오해, 서로 직면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족함으로, 선교사들이 종종 선교지를 떠나거나 나라를 바꾸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중 분노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감정 안에 분노가 일어 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성숙하지 않다고 자기정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분노를 잘 다루지 못했던 사역자로서 자기정죄에 깊이 빠지곤 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인데, 제 주변에 있는 측근 사역자들은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A라는 사람에게 우연히 길에서 만나,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아쉽게도, 저는 그 당시 A라는 분을 한번도 우연히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특정한 이야기의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특정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에 연관된 사역자들을 만나서 진실을 말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동역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움직였습니다. 저의 분노의 이유는 동역자 몇 분들이 저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분들 사이에서 저의 평판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서로 직면하지 않는 사건들로 인해,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좁은 선교지의 생활은 서로 관계 가운데 예민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감정은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움직임을 통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감정을 우리에게 의롭지 못한 죄와 사탄에 대항하라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4:1-10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의 감정에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아 왜 화가 났니?” 그리고 “가인아 왜 너의 얼굴색이 변했니?” 계속하여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쉽게도 가인은, 결국 분노를 못 다스리고, 분노의 감정이 아벨을 죽이는 행동 즉 죄로 이끌게 합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화가 났고 얼굴색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감정 즉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하려고 먼저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며, 저의 감정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목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가 저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저의 감정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위로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제가 왜 분노가 일어 났는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감정을 나눌 때, 그분은 또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의 모든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지체들도 저의 내면의 갈등에 대해 정답을 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팀과 사역하면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지혜로 요동하지 않고, 제 감정이 성장하고 회복 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지체분들께, 현재 있는 장소에서 또는 선교지역에서 항상 팀사역에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시고, 감정안에 하나님을 늘 초청하여 건강한 사역자로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④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